

김산호 회화극본

The story of Holy Buddha

부처님

제2화 룸비니 동산의 기적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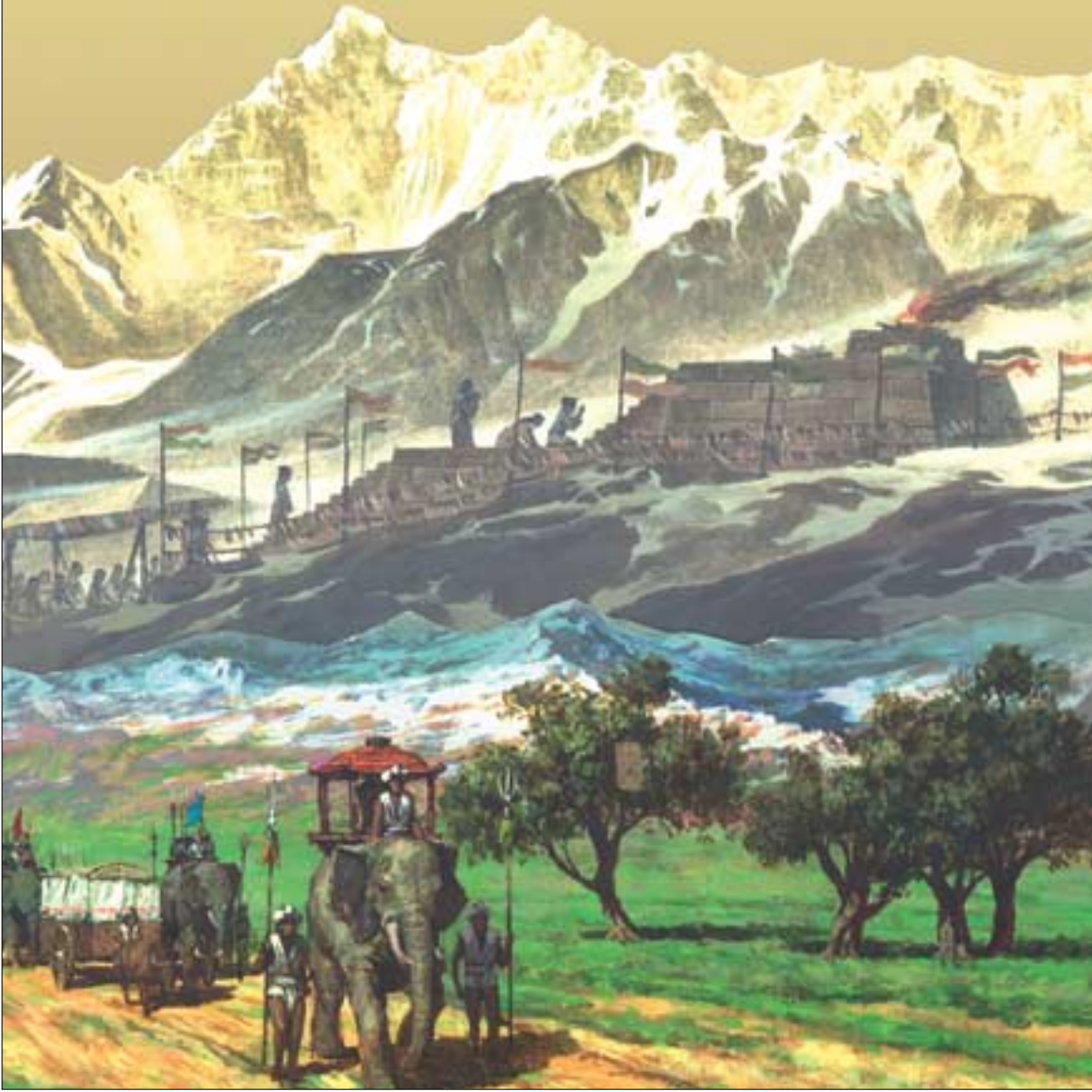


아 시타 선인의 꿈에 나타난 신들을 이끄는 신은 인드라(Indra)신으로서 사크라(Sakrodevendra-帝釋)신을 말한다. 한편으로는 '석제환인(釋提桓因)陀羅'인데 '제'는 'Indra'의 번역이고, '석'은 '사크라(Sakra)'의 뜻이다. 불전에 말하는 세계 최고의 산이라는 수미산 꼭대기 도리천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4천왕과 32천(天)을 통솔하면서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보호하며 아수라의 군대를 정벌

한다는 신(神)을 말한다. 사크라 신의 계시를 받은 아시타 선인은 급히 설산을 떠나 장차 부처님이 되실 것이라는 아기 성인을 만나 보러 카필라바스투성으로 갔다. 불전에 의하면 당시 아시타 선인의 나이는 이미 100세를 넘기고 있었다. 기대하지도 않았던 아시타 선인의 출현에 숙도나 라자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맞았다.

관 상과 성전에 정통한 도인이 아기 왕자를 받아들이고 아기의 모습을 유심히 살피기 시작하니 주위의 사람들은 아연 긴장하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돌연 선인의 얼굴에 형언할 수 없는 기색이 떠올랐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한동안 말없이 아기 왕자를 바라보던 선인의 두 눈에 이슬처럼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 내렸다. 선인(仙人)의 눈물을 발견한 숙도나 라자와 마야데비 왕비는 불

같은 예감에 어쩔 줄을 몰랐다. 새 왕자의 출생으로 온 국민이 경축하며 그동안 수많은 예언가, 관상가들이 몰려와 모두 아기의 장래가 훌륭하다고 축하하여 주었는데 어찌하여 아시타 선인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일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마야데비 왕비는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선인이시여, 왕지의 장래에 무슨 불길한 징조가 보이길래 선인께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아 니을시다, 왕비마마. 이 아기왕자에게 불길한 모습은 없사옵니다. 이 왕자의 발바닥엔 일 천개의 바퀴가 있고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막(膜)이 있사옵니다. 또 눈썹사이엔 흰 털이 감아서고 얼굴빛은 불꽃처럼 빛나고 있어, 범상한 인물이 아니옵니다. 큰 위인의 상(相)으로서 32가지의 길상(吉相)을 모두 갖추었습니니다. 이런 분은 일단 왕위에 오르면 무력을 쓰지 않고도 전 세계를 지배하는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왕위를 버리고 출가수행의 길을 택하신다면 반드시 정각(正覺)을 이루고 부처(부처님)가 되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제해 줄 것입니다. 32상(三十二相)을 모두 갖추신 분에게는 이 두 길 밖에 다른 길은 없사옵니니다.

그런데 나는 이미 100세를 넘겨 살아 이제는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니다. 내 평생 다 바쳐 정각을 이루려고 갖은 노력을 다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 이제 겨우 부다가 되실 분을 찾은 것입니다. 다만 이분이 장차 정각을 이루고 부다로서 법륜을 굴릴 때 나는 이미 생명을 다하여 그 말씀을 듣지 못할 것이니 이 얼마나 슬프고 억울한 일입니까. 내 자신의 입장이 하도 한스럽고 딱하여 저절로 눈물이 흘렀던 것이옵니니다."

이 순결한 수행자는 숙도나 라자와 마야데비 왕비에게 더할 수 없이 기쁜 예언을 마치고 궁전을 나와 설산으로 돌아갔다.

*전륜성왕(轉輪聖王): 인도의 범어로 '차크라 바르틴(Cakra-Vartiraja)'이란 수미4주의 세계를 통솔하는 대왕이다. 인도는 국토가 넓어 예전부터 통일국가를 이루어 본 적이 없었다. 다만 전설로만 전륜성왕이 나타나 천하를 다스렸다 전해지며 이상적인 군주를 가리킨다.

*정각(正覺): Sambodi(삼보디)를 말함인데 우주의 대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것을 말한다. 여래(如來)와 같은 말로서 부처님(Buddha, 부처)의 깨달음을 일컫는다.

*당시의 인도에는 두개의 사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니, 그 하나는 외래족인 아리아인들의 믿음으로 신과 통하는 브라만(Brahman)에 의하여 희생과 공물(供物)을 바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결과 신들의 은총을 받는다는 사상이었다. 또 다른 하나는 카르마(業, 行爲)와 윤회사상(輪廻思想)을 믿는 인도의 토착종교였다. 이 윤회사상은 아주 오래 전부터 인도인의 정신세계를 지배하여 왔으니, 즉 사람이 죽은 후 어떤 이는 신의 길을 따라 천상으로 오르고, 어떤 이는 조령(祖靈)의 길을 따라 비에 섞여 다시 지상으로 내려와 식물이나 동물에 먹혀서 정자(精子)가 되었다가 다시 수태되어 생명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또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천상에 오르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불행한 생활을 하며 생사윤회(生死輪廻)를 되풀이 하게 된다는 것이다.

식 다르타 고타마 왕자가 태어난 지 7일만에 어머니인 마야데비 왕비는 그 명(命)을 다한다. 따라서 어린 왕자의 양육은 마야데비 왕비의 동생이면서 숙도나 라자의 제 2왕비인 마하파자파티가 맡게 되었다. 유교의 영향권 하에 있는 우리나라 중국에서는 굳이 새 어머니를 '이모'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언니가 죽자 제 2왕비로부터 정비가 되어 자연스럽게 왕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참고로 마하파자파티 왕비에게 그녀가 낳은 '난다(難陀)'라는 식다르타의

배다른 동생이 있다. 마하파자파티왕비는 언니의 아들인 식다르타 태자를 기르는데 온갖 정성을 다 바쳤다. 멀리 설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동산에서 식다르타는 마음껏 노닐며 기쁘게 자랐다. 이때의 장면을 <본행경(本行經)>이 전하는데 태자는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뛰어나서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으며 눈물을 흘리거나 두려운 행동을 하지 않았고, 또한 배고프고 목마르며 춥거나 더운 것을 다 모르는 가운데 항상 밝고 지극히 깨끗하게 자랐다고 하였다.

